ELIO’S LITTLE DISCOVERIES

A Place to Sit

돗자리와 바구니



8세 · Day 007 · 함께 읽기 · 2장면



Elio spread a little mat beside the pond. “A good place to sit,” he said.



He put the basket on the mat. “I can sit here,” he said, looking at the little space beside it.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연못가에 돗자리를 펴는 첫 그림과 첫 문장을 함께 맞춰 봐요.

함께 읽을 때

따옴표 속 말과 엘리오의 행동을 나눠 짚으며 읽어요. 어려운 부분은 보호자가 함께 읽어요.

생각 나누기

‘I can sit here’에서 here는 그림의 어디일까요? 바구니를 놓기 전과 뒤에 남은 자리를 비교해 봐요.

생활에서

방석 위에 가방을 올려 보고 몇 명이 앉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요. 무겁거나 깨지는 물건은 어른이 옮겨요.

《A Place for Bori》의 같은 여섯 그림에 새 대사를 더한 함께 읽기 확장판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해독 자료가 아니에요.

ELIO expanded reader · 제2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